

새로운 시대적 관점에서 여성 역량의 재해석과 과제

신하영

새로운 시대 달라진 세계

New normal? Post Covid19?



출처: <https%3A%2F%2Ftheburgnews.com%2Fsports-health%2Fa-new-normal-health-care-providers-are-adapting-to-safely-deliver-services-during-the-coronavirus-pandemic&psig=AOvVaw1XinaW1XbwUasumYL4lw98&ust=1600780828970000&source=images&cd=vfe&ved=0CAIQjRxqFwoTCPiK7cWr-usCFQAAAAAdAAAAABAc>

출처: https%3A%2F%2Fhrdailyadvisor.blr.com%2F2020%2F05%2F14%2F500-day-journey-to-the-new-normal%2F&psig=AOvVaw1XinaW1XbwUasumYL4lw98&ust=1600780828970000&source=images&cd=vfe&ved=2ahUKEwj45dS2q_rrAhUOZ5QKHRWjCdoQr4kDegUIARCFaQ



New normal? Post Covid19?

- 비대면 서비스의 비약적 확장
- 하늘길이 막혔다- 해외 교류 제한적, 내수 시장 활성화 필요
- 생활밀착형 서비스 전면 재편이 필요
 - 식음료, 케어 서비스(방문/파견기반 서비스) 축소 및 변화
- 대면 및 접촉 서비스 제공자의 시장 기회가 줄어듦
 - 대면서비스 소비가 반드시 필요한 계층의 위기
 - 돌봄서비스 분야 비대면 국면으로 급작스러운 전환이 일어남
- 지금의 '어려움'은 정말 재난으로 인한 것인가?
 - 자동화, 기계화 필요는 지속적으로 제기됨
 - 코로나 상황의 '감염병 논리'로 변화의 창이 열려버림

AI, 초연결의 시대



대표적 인공지능 반도체 투자 기업

자료=정보통신기획평가원, Hot Chips

인공지능 가속기



HBM 모듈 가속기



뉴로모픽 칩



세계 인공지능 가속기 시장 규모 전망



세계 HBM 모듈 시장 규모 전망



세계 뉴로모픽 칩 시장 규모 전망



AI, 초연결의 시대

- 원격 근무 도입과 확장, 물리적 노동공간과 시간의 재구성
 - 전면 자율근무제가 도입되는 직군/직무/사업장 증가
 - 예: Ebay Korea, 2주간 90시간 자율계획 근무제
- 사람을 뽑는 인사(HR)가 아니라 성과를 관리하고 효과성을 측정하는 조직(HRO) 관리로 전환
- 역량이 집중되는 분야는 생산성을 높이는 것 + 생산성을 관리하고 + 생산하는 사람의 소진을 막는 분야
 - Human Resource + Organization 분야 여성 집중화
 - 위기를 기회로- 노동유연화 시대, 플랫폼 노동 시대 여성 HRO 역량 투입

다양성의 시대



혐오의 시대, 사회적 포용이 절실



성주류화에서 젠더혁신으로

- 성주류화(gender-mainstreaming)
 - 성불평등, 성적 차이와 관련한 문제를 주류화시키는 것
 - 기존 제도와 정책 도구에 대한 성인지적 접근
- 젠더혁신(gender innovation)
 - 과학기술분야 젠더 관점의
 - 성·젠더 분석을 하나의 도구로 활용해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혁신 기술을 개발하는 과정

여성 역량 여성의 가능성

성대골 에너지 자립마을

- 김소영 대표



SK Energy Company Blog

출처:
<http%3A%2F%2Fjaga.or.kr%2F%3Fp%3D11960&psig=AOvVaw06ZI3P3I7H5j5lneHBtyP&ust=1600780652899000&source=images&cd=vfe&ved=2ahUKEwj8otriqvrrAhUWhJQKHbseCd0Qr4kDegUIARCMAQ>

출처:
<https%3A%2F%2Fskenergy.tistory.com%2F1594&psig=AOvVaw06ZI3P3I7H5j5lneHBtyP&ust=1600780652899000&source=images&cd=vfe&ved=2ahUKEwj8otriqvrrAhUWhJQKHbseCd0Qr4kDegUIARDJAQ>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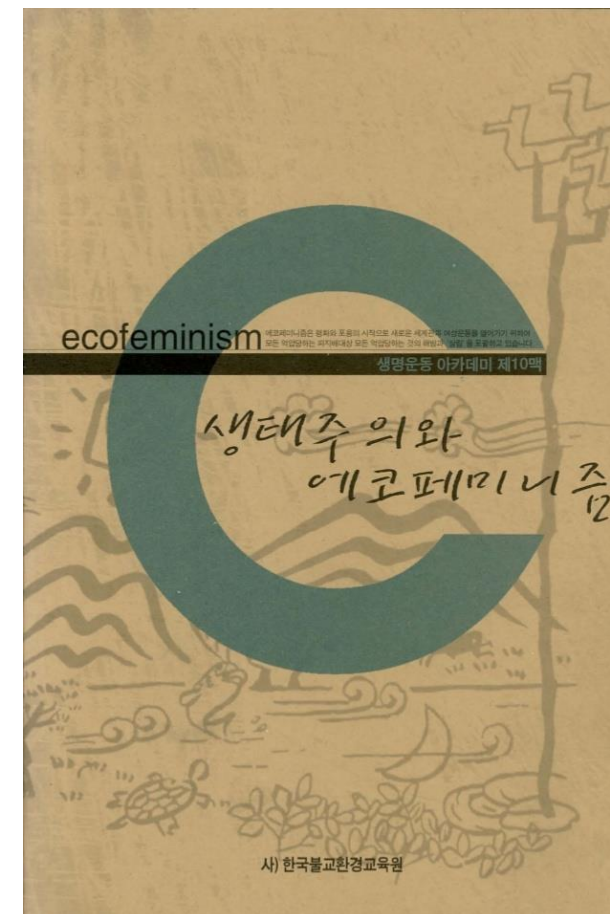
성대골 에너지 자립마을

- 김소영 대표



- 성대골 에너지마을 사례의 특징
 - 리빙랩 관련 주요 키워드의 집합체
 - 지역혁신. 마을만들기, 도시재생
- 자원 순환형 에너지 분야 리빙랩 사례
 - 환경과 대체에너지 분야는 한국이 전세계적으로 가장 약한 정책/ 혁신/ 연구분야임
 - 비용이 많이 들고, 단기적 투입 대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 비용의 직접적인 절감 보다는 국가 지원정책, 보조금 제도와 '똑똑한' 결합이 중요
 - 국가 정책 확산과 함께 성장
-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

에코페미니즘 eco-feminis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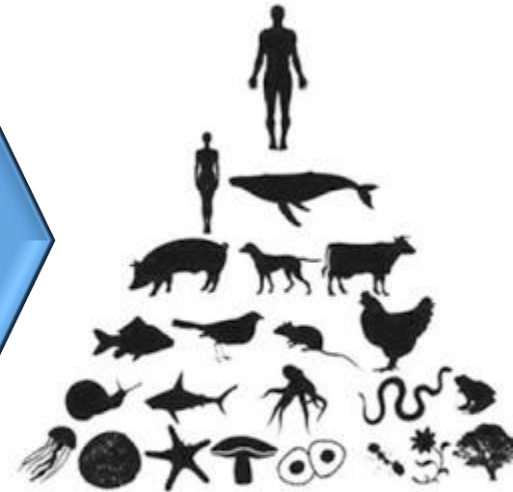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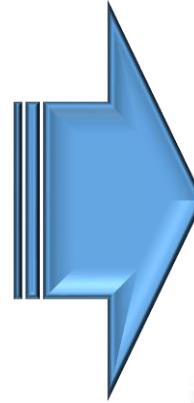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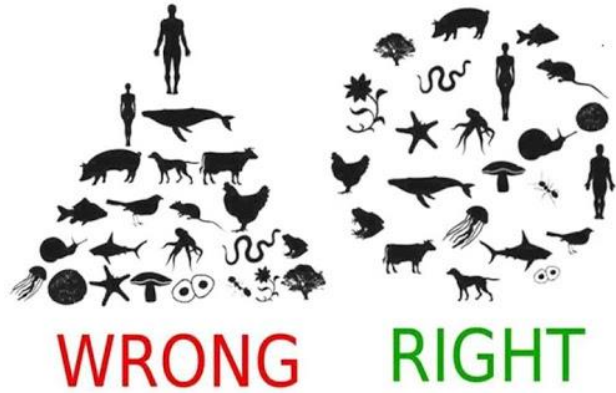


에코페미니즘 eco-feminism



- (개념) 인간과 자연, 여성과 남성식의 분리와 대립에서 벗어나 평화와 화합의 지향
 - Oikos ‘살림’을 지향
- ‘살림하다’
 - 여성에게 필연적으로/의무로 주어지던 임무
 - 인간 삶을 유지하고/ 재생산하는 메커니즘
- 살림의 재발견
 - 손살림: 수공예 고부가가치
 - 돌봄의 사회화/ 상호의존성 재부각

왜 생태적 접근에서 여성이 부각되나?



가부장제: 위계적
사회관계



생태적 사회관계

왜 생태적 접근에서 여성이 부각되나?



가부장제: 위계적
사회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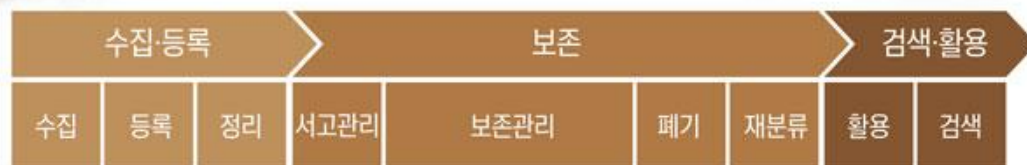


생태적 사회관계

- 기존 사회구조 생산-소비의 이분법적 구도
 - 가부장제 위계적 구조에 상응
 - 지구 환경의 소진, 파괴를 가져옴
 - 일방향적 에너지 흐름: 소비 후 폐기
- 생태적 사회관계
 - 기존 권력관계 해체
 - 상호이해, 호혜적 관계 (자매애)
 - 공감적 자연 대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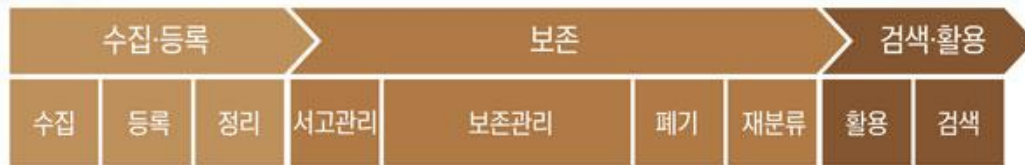
새로운 연구방법론, 여성적 서사 재구성

• 구술사 연구



한국 구술사는 1980년대 광주민주화운동 등을 잊지 않기 위한 '생존 조치'로서 필요성이 제기돼 등장했다. 과거사 진상 규명을 위한 사회 운동으로의 정체성이 강했던 셈이다. 특히 반공주의로 인해 연구 성과가 미진했던 좌익 활동에 대한 구술 수집이 활발히 이뤄졌다. 1990년대엔 제주 4.3 사건, 위안부 피해자, 미전향 장기수 등 한국 현대사의 그늘 속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지방과 여성으로 연구 범위가 확장됐다. 2000년대 이후엔 정부 기관의 활발한 연구 지원 하에 과거사 규명은 물론 예술사, 지역사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구술 수집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 국립예술자료원 정보원 과장은 "원로 예술인의 생애사 및 주제사를 정기적으로 수집하는 구술 채록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2003년부터 매년 주요 예술인들을 인터뷰해 『한국근현대예술사구술채록시리즈』를 발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귀옥 교수(한성대 교양학부)는 「한국학 발전을 위한 구술사 연구의 쟁점과 과제 : 구술사 연구 동향과 쟁점」에서 "구술사는 일반 연구에서 종래 국문학의 한 갈래로 존재해온 구비전승 분야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수용되고 있으며, 비교적 엄격한 방법론을 요구하는 학위 논문에서도 기록학 분야를 중심으로 널리 쓰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연구방법론, 여성적 서사 재구성



- 구술사(narrative)
 - 철학적 기반은 구성주의, 현상학
 - 말하는 이에게 이미 답이 있다
 - 과학적 엄밀성, 일관성에 대한 의문 제기
 - 대표적인 예: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 증언 채록, 이주여성의 디아스포라 경험
- 사회 문제를 재발견, 재정의
 - 행정의 영역보다 생활의 영역에서 들어주고, 말하는 적극적 사례수집자로서 여성이 대두됨

경계'선'을 넘는 여성들

지구를 누빈 현장연구 전문가
12인의 열정과 공감의 연구 기록

엄은희, 구기연, 채현정, 임인나, 최명래, 장정아,
김희경, 육수현, 노고운, 지은숙, 정이나, 홍문숙 지음

여성 연구자,
선을 넘다



이 책의 저자들은 과감하게 선을 넘은 여성 연구자들이라는 것이다. 먼저 여성이라는 사회적인 편견과 제약을 넘었고, 인생의 통과 의례들(결혼, 출산, 육아 등)로 인해 생기는 고립과 좌절을 넘었으며, “유리 천장”에 저항을 했으며, “직업 연구자”가 되기 위한 개인적, 심리적, 체력적 선을 넘어야 했던 사람들이다. 무엇보다도 영토적 경계를 넘어 낯설고 두려운 곳으로 떠나야 했던 사람들이기도 했다.

아울러 이 책은 여성의 입장이 고려되고, 여성이 감내해야 하는 부분이 피력되고, 여성의 시각으로 구성되고, 여성을 이야기하는 지역연구 책으로 첫걸음을 내딛은 책이다. 이 책의 저자들은 이 책을 통해 “여성으로서” 해당 지역의 전문가로 조명을 받고 그들이 습득한 지식을 널리 공유하고 확장할 수 있는 힘을 얻기까지 그들이 겪었던 수많은 일들을 생생하게 고백한다.

리빙랩 분야의 여성들

암생존자 리빙랩



- 온랩 서정주 코디네이터
 - 지속가능한 ‘부캐’ 활동
 - 리빙랩 시민참여의 형태
- 암생존자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리빙랩 활동
 - 본업과 리빙랩 단의 결합도가 높아 시너지
 - 환자들에게 약물을 공급하는 회사
 - 암생존자/환자/노인 영양돌봄 문제해결
- 암생존자에게 필요한 것이 치료에서 그치지 않고 문화적 접근이 필요한 것에 착안
 - NOW 콘서트 주최
 - 인식개선/ 교류 활동

리빙랩 아카이브, ‘의미화 작업’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성지은 박사
 - 리빙랩 사례 발굴, 이론화
 - 시민사회 영역 변화 아카이브
- 뉴미디어 활동
 - 리빙랩 성과 확산, 가시화
 - 혁신가, 활동가, 운동가에게 ‘리빙랩’을 전파
- 연결자, 중재자 역할
 - 정책현장에서 연구자와 현장 간의 간극은 언제나 큰 문제로 대두됨
 - 정책적 자원이 필요한 사례를 공공으로 연결
- 새로운 방법론, 내러티브(구술사) 접목
 - 리빙랩 ‘야부리’ 유튜브 콘텐츠 생산

지역혁신, 로컬푸드



- 완주 사회적경제협동조합 사무국장 김효진
- 완주 로컬푸드 지역혁신
 - 독립경영체 성공모델
 - (기존) 지역에서 소비되고 있는 농산물은 중간 상인들이 대도시 공판장에서 구입해와 지역 시장에 공급
 - (완주 사례) 로컬푸드 정책을 통해 소농, 고령농, 여성농, 귀농 중 0.5헥타르 미만의 3천412농가를 조직화
- (문제 보다는 사람)
 - 지역간 불균형, 농산촌 과소화 및 고령화 등 성장동력의 부재는 상수(a constant)
 - 월소득 150만원을 보장
 - 실질적으로 사업 대상이 될 소농, 고령농, 여성농, 가족농의 조직화
 - 현장과의 밀착력(skinship)

과학기술정책, 리빙랩 거버넌스



- 박지인 과기정통부 사무관
 - “현장에서 진행되어 온 리빙랩 더 잘 될 수 있게 지원할게요”
 -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정부의 문법/행정의 언어로 전달 지원의 대상에서 혁신의 주체로
 - “사회문제 해결형 사업은 담당자가 자꾸 바뀌면 안 된다”
 - 정부 역할에 균형감각이 필요
 - 지원과 진흥 vs 계획과 선도
 - 행정분야 여성리더로서 기존과 다른 리더십, 행정가의 면모

출처:

<https://www.ewestoday.co.kr/news%2FarticleView.html%3Fid%3D1334908&psig=AOvVaw2ICvh7QGYsVJsL9CjRQfl6&ust=1600778140605000&source=images&cd=vfe&ved=0CA0QjhxqFwoTCljrx8Sh-usCFQAAAAAAdAAAAABAE>

‘나’의 문제는 세상을 바꾼다



- 개인의 문제 인식→ 혁신적 해결방
법→ 구조 개혁→ 혁신 재생산
 - 리빙랩 메커니즘의 핵심
 - 구조 변화를 위해서는 고통이 따름
- 지원의 대상에서 혁신의 주체로
 - 환우회는 지원대상이 아니라, 적극
적 옹호단체
 - “환자를 메이커로서 전문가로서 그
리고 협력자로서 새롭게 자리매김한
사례이다.”

여성을 위한 리빙랩

돌봄노동, 돌봄제공자 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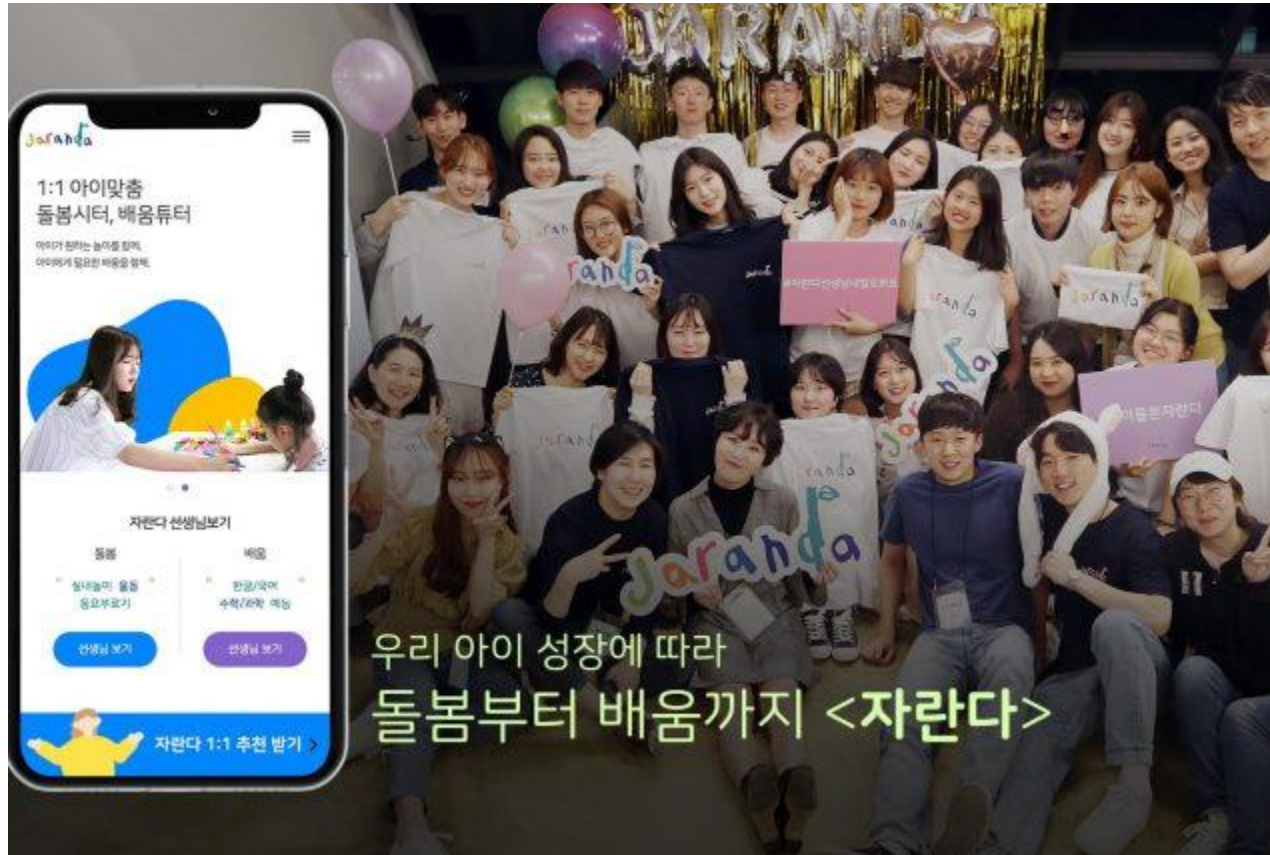


요즘은 이런 일들이 사회화되어
돌봄노동자가 생겨났습니다.
간병사, 산후관리사, 보육사, 영양보호사,
가사노동자(가정관리사) 등이
돌봄노동자입니다.

돌봄노동, 돌봄제공자 여성

- 돌봄윤리(caring ethics)와 돌봄정의(caring justice)
 - 돌봄을 주는 사람에 집중
 - 돌봄노동, 가사노동의 재평가 + 돌봄노동 제공자 처우개선
- 돌봄의 관계란 돌보아 주는 사람(the one caring) 과 돌봄을 받는 사람(the one cared) 간에 맺어진 관계를 의미 – Noddings(1984)
 - 돌봄 서비스의 변별적 차이
 - 서비스를 구입하는 사람 ≠ 실제 서비스 효과를 경험하는 사람 (많은 경우에)
 - 사람과 사람 간의 역동적 관계성을 근거로 일어나는 ‘체험’
 - 경험의 교환 행위
- (sol.1)여성이 집중화된 돌봄노동 시장 개선
- (sol.2)여성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돌봄서비스 확대, 공공화

돌봄 분야 혁신



놀이와 배움의 혁신



믿을 수 있는
놀이 시터가
신나는 놀이를 선물합니다



인터넷 공간의 재구성, 정화

온라인 성희롱·성폭력 및 여성 혐오 실태

※온라인에서 성희롱·성폭력 경험을 했거나 목격한 20~40대 여성 600명 대상, 2018년 10월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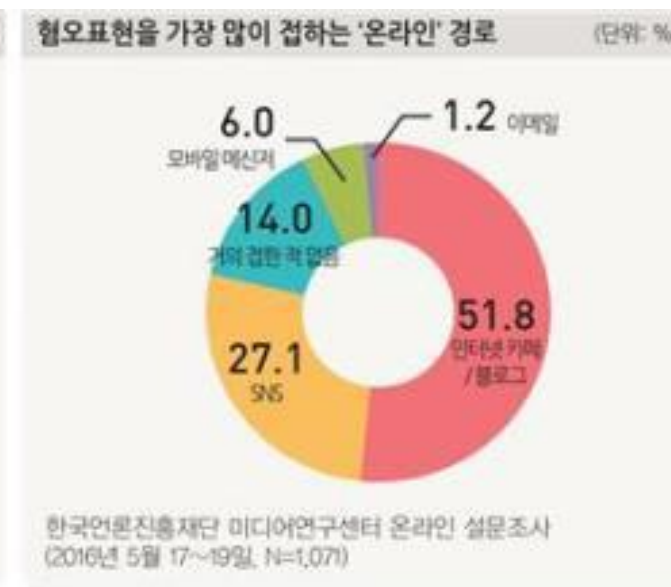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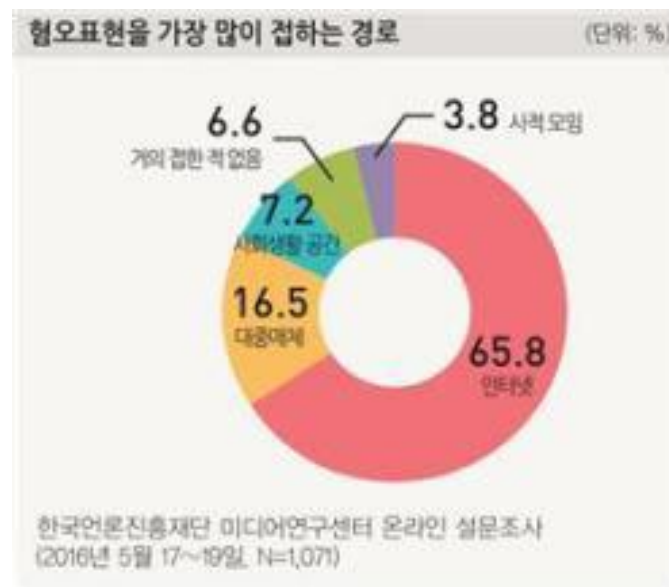
온라인 성희롱·성폭력 경험 여부 (단위: %, 복수응답)



온라인 여성혐오 표현 노출 후 변화 (단위: %, 복수응답)



〈자료: 국가인권위〉



출처: <https://www.sedaily.com/News/NewsView/PhotoViewer?Nid=1KZ1111J2Z&Page=1>

출처: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Fid%3D20190218002006&psig=AOvVaw1bY33AtXMEylz6NcexMnS0&ust=1600781195854000&source=images&cd=vfe&ved=0CA0QjhqxqFwoTCPDd_-as-usCFQAAAAAAdAAAAABAU

인터넷 공간x리빙랩x젠더

인터넷 공간과 젠더

젠더갈등과
혐오 문화를
넘어설
대안을 찾아서

웨비나

신청자 대상 zoom
온라인 회의장소 공지

다양성임팩트
연구소

1차 포럼

2020.10.13.화

저녁 7:30~9:00

인터넷 공간은 ‘디지털 네이티브’로 일컬어지는 MZ세대에게 매우 익숙한 사회적 관계의 공간이자, 젠더 인식의 차이가 가장 확연하게 드러나는 공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인터넷 공간에서의 젠더로 이야기 하기, 젠더를 다루는 방식을 새롭게 상상해 본다면 어떨까요? 그동안 인터넷 공간에서의 젠더 차별과 갈등 문제를 고민해온 문화 연구자, 커뮤니케이션 연구자, 여성 커뮤니티 창업가와 함께 깊고 밀도있는 대화를 나누는 온라인 포럼에 초대합니다

FORUM



MODERATOR

신하영 다양성임팩트연구소 대표



PANEL 1 인터넷 공간에서
혐오 정서와 젠더 갈등
왜 계속되는가?

최태섭 문화평론가, <한국, 남자> 저자



PANEL 2 미디어 콘텐츠의
사회적 책임,
젠더감수성

홍숙영 한세대학교 미디어영상광고학과 교수,
융합스토리텔링연구소장



PANEL 3 이 업계 여성들만 알고 있는
기울어진 운동장, 그리고
새로운 움직임

김지영 '스타트업 여성의 일과' 삶 커뮤니티 대표

시간과 활동의 재구성



‘배움의 공간’ 프로젝트

출처: <http://futurechosun.com/archives/33973>



‘놀세권’ 프로젝트

시선과 공간의 재구성



아이들이 작품을 만나 세상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도록
어린이미술관을 지원하는 투자

C Program의 새로운 실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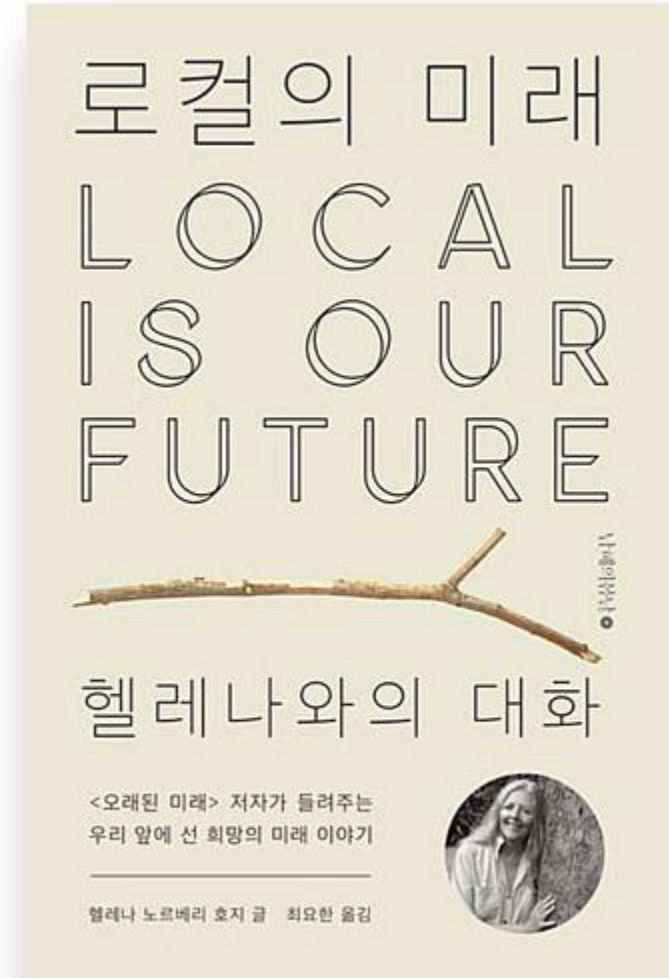
모든 아이들에게 열린 일상
공간, 놀이터를 지키는 투자

C Program이 생각하는 인프라

위계와 중심의 재구성



출처:
<http%3A%2F%2Fm.yes24.com%2FGoods%2FDetail%2F89328995&psig=AOvVaw12eUz5pQBjcHSTBJePMcqV&ust=1600782064982000&source=images&cd=vfe&ved=0CA0QjhxqFwoTCLiM9oSw-usCFQAAAAAdAAAAABAD>



출처:
<https%3A%2F%2Finmun360.culture.go.kr%2Fcontent%2F360.do%3Fmode%3Dview%26cid%3D2366173&psig=AOvVaw3lnWT3ufIRTorGsuFBxiLz&ust=1600782024291000&source=images&cd=vfe&ved=0CA0QjhxqFwoTCLDa1vKv-usCFQAAAAAdAAAAABAD>

리빙랩 분야의 젠더이슈

여전히 부족한 대표성, 이슈 부각



한국사회의 고질적인 다양성 부족

다양성 모르면 무능한거죠

▶ '100분 토론'은 왜...



리빙랩 분야 젠더 이슈s

- 기술중심 사고방식, 4차산업혁명 기조 강조로 여성소외가 우려
 - 생활의 문제를 발견하고, 가시화하는 것은 여성이지만
 - 원천기술을 보유하기 어렵거나, 자체개발하는 데 한계에 부딪힘 → 소외 발생
 - 지도력(leadship)은 지나 주도권(initiative)을 갖지 못하는 상황 발생
- 리빙랩 추진 과정의 의사결정 불평등
 - 성별고정관념으로 의사결정 구조에서 배제되거나 부차적인 역할 → 소외 발생
 - 홍보, 대외관리, 서비스 유통 영역에 역할이 고정되고 있지 않나
- 리빙랩 지원사업, 임팩트 투자에서 여성소외
 - 사업화, 전업화 하는 경우 지원과 보조가 집중되는 경향
 - 여성들은 본업으로, 사업으로 리빙랩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소외가 발생

더 많은 리빙랩 ‘언니들’이 필요하다!



- 세대별 리빙랩 주자 양성 필요
 - 여성 x MZ세대
 - 전남대학교 캠퍼스 리빙랩 사례: 김예본, 임은서 학생 (로컬혁신, MZ 세대, 여성, 캠퍼스 혁신)
 - MZ 세대 여성 리빙랩 분야 유입이 필요
 - Millennial (198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출생한 세대) + Z세대 (밀레니얼 다음세대, 1997년부터 2010년대 초반 출생)
 - 경험주의, 현실주의
- Young40 여성의 경험과 현실인식
 - 환경/ 에너지/ 보건(감염병) 이슈에 빠르고 능동적으로 대처
 - 지역사회 의견 모으기 + 작은 실천 주도
 - ‘허리세대’ 현장에 끌어내는 것이 필요

As is 지금 우리는

- 함께 모여서
- “툴아보다”
 - 찬찬히 살피어 보고
 - 들여다보고
- 꼬집어내다
 - 리빙랩과 사회혁신 분야에서 어떤 불평등과 배제가 있는지
 - 여성들이 충분히 발언하고 있는지
 - 실무는 여성들이 하고, 의사결정은 기존 권력관계의 기득권이 하고 있지는 않은지
 - 여성들에게 리빙랩의 ‘효과’가 가닿고 있는지

제1회 「리빙랩과 젠더」 포럼

리빙랩 활동을 젠더 관점에서 톺아보다!

일시 | 2020. 9.25(금) 14:00 ~ 17:30
장소 | 서울 퇴근후2시간 인사라운지
진행 방식 | 온라인 유튜브 중계(한국리빙랩네트워크TV: <http://bit.ly/LivingLabTV>)

시간	세부 내용
14:00~14:20	개회 및 참석자 소개
14:20~16:00	발제 젠더 혁신의 관점에서 리빙랩 활동의 평가와 과제 성지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새로운 시대적 관점에서 여성 역량의 재해석과 과제 신하영 다양성임팩트연구소 대표 리빙랩 활동에서 요구되는 여성의 리더십과 과제 서정주 온렙 코디네이터
16:00~16:10	휴식 및 패널토론 준비
16:10~17:10	토론 및 질의응답 좌 장: 송위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패 널: 김민수 동국대 교수 신혜선 이로운넷 편집국장 이보현 ㈜엔유비즈 대표 임소연 숙명여대 교수 하정은 한국연구재단 공공기술단 단장
17:10~17:30	사진촬영 및 종합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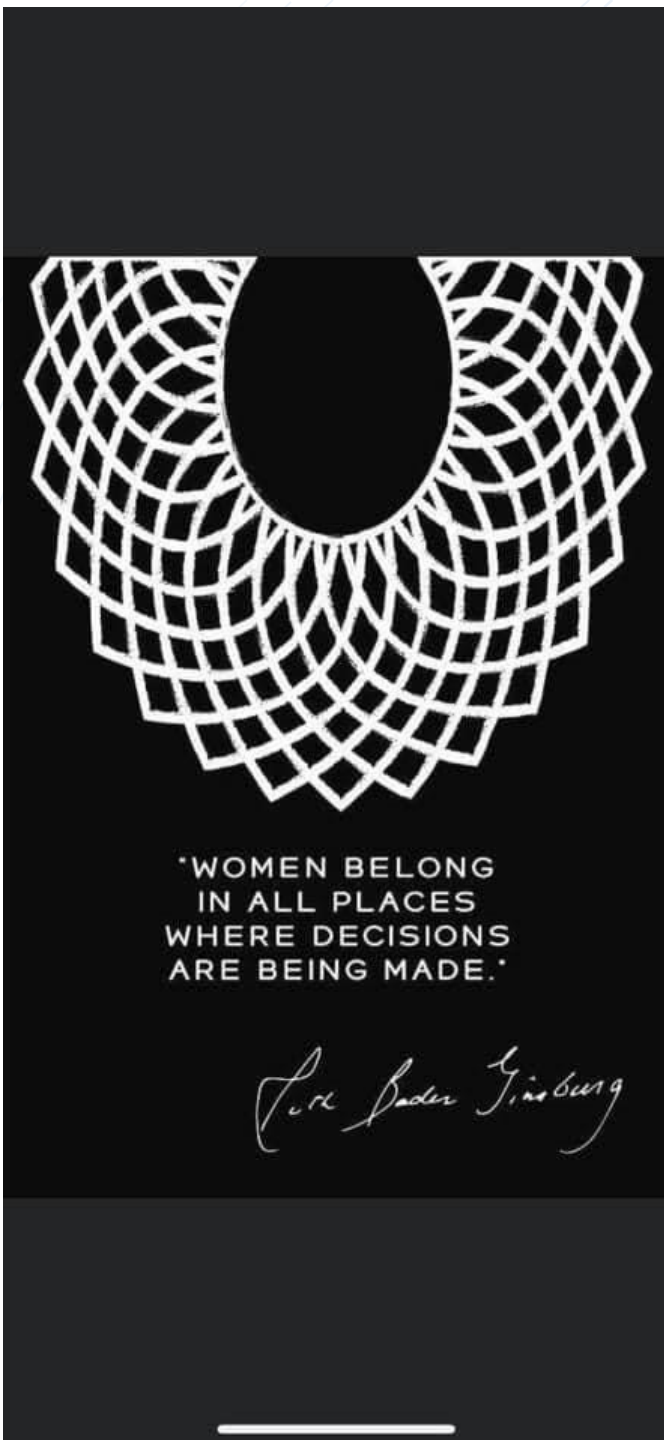
문의처: 김수은 연구원 / sueun@stepi.re.kr

주최/주관 STEPI 과학기술정책연구원 OnLab [다양성임팩트연구소]

후원 한국리빙랩네트워크(KNoLL) 나우

To be 앞으로 우리는

- 킨스버그의 말을 기억합니다
- 모든 의사결정, 모든 혁신의 장면에 여성이 있을 때
- 리빙랩으로 젠더하기, 젠더로 리빙랩 하기가 가능하다
- 모든 리빙랩의 현장에 여성이 함께할 때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신하영

Contact: hyshin@sm.ac.kr